



예진호 마르첼리노 | 생활성가 가수

처음 마주한 나의 민낯

저는 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저의 집안은 할머니 때부터 줄곧 성당을 다녔고 저 역시 모태 신앙으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당을 다녔습니다. 저에게 성당을 다니는 것은 마치 학교에 다니는 것과 같이 너무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생활의 일부였습니다. 성당을 다니면서 저는 주일학교와 청년회 활동 등을 했고, 청년회장까지 맡으며 누구 못지 않게 활발한 활동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를 비롯하여 함께 활동하던 교우들은 대부분 부모님들끼리도 서로 알고 지내시는 익숙한 사이였습니다.

저는 청년회 활동을 하며 교정직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고, 마침내 합격의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합격 후, 고향에서 가까운 근무지를 지원하고 설렘과 불안함이 무한히 교차되는 마음으로 근무지 통보를 기다렸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드디어 전화가 왔는데, 그곳은 경기도 여주였습니다. 그 전화를 받으면서 저는 온몸에 털이 곤두서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의 기분은 12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도 정말 생생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단 한 번도 타지 생활을 경험하지 못했고, 심지어 군 생활마저도 고향에서 했던 역세게 운이 좋았던 저는 생애 첫 타지 생활을 통보받고 심각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마음속으로부터 알 수 없는 자신감을 끌어냈습니다. 아마 “나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이루며 잘 살아왔어.”, “분명 새로운 곳에서도 그럴 거야.”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 저는 정든 고향을 떠나 생애 첫 타지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돌아오는 주일에 근처 성당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껏 자신감을 안고 처음으로 낯선 성당에 도착한

제가 맞닥뜨린 너무도 새로운 환경은, 제가 우물 안 개구리였음을 절실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토록 활발하고 자신감 넘쳤던 예진호라는 청년은 생애 처음 마주한 새로운 환경 앞에서 한 명의 소심한 청년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밝음과 자신감이 제가 잘나서 생긴 능력이 아니라, 주변 환경 등 많은 부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임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생애 처음 마주한 낯선 환경에 더는 용기를 내지 못하고 냉담의 길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분명 그 결과가 달랐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듭니다. 그러나 그때의 경험이 20대의 저에게 분명 좋은 약이 되었음은 분명합니다.

지금도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제가 잘나서 얻어진 것이라는 교만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 때마다 약 12년 전 그 순간을 생각해 봅니다. 그 어떤 꾸밈도 없는 저의 민낯을 처음으로 마주했던 그날을 말입니다.

나를 이끄는
성경구절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의 이름은
찬양 받으소서

김효식 엘리사벳
인천교구 마전동성당

시편 113.3